

2024. 5. 1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30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자연생태과장 | 한정훈 | 2133-2141 |
| 자연생태기획팀장 | 신재원 | 2133-2154 |
| 누리집 | gil.seoul.go.kr(확인) | |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12쪽

21개 코스 세분화… 새봄 새로운 서울둘레길 걸어요

- 4월말부터 ‘서울둘레길 2.0’ 운영…안내체계 통일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정비
-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8개→21개로 코스 세분, 코스당 평균 20km→8km 줄어
- 둘레길 입구 및 코스 중간에 꽃나무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매력가든 10개소 조성
- 둘레길과 연계, 서울시내 조망을 겸한 하늘숲길 조성…다양한 볼거리·즐길거리 제공
- 시 “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 운영과 관리로 품격 높은 숲길 서비스 노력”

누구나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는 길, 서울의 역사·문화·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길 등… 서울시는 4월 말부터 서울둘레길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.

○ ‘서울둘레길’은 산·하천·마을 길 등 서울 외곽부 구석구석을 잇는 총 156.5km, 8개 코스로 2014년 개통하여 지난 10년 간 서울을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해 왔다.

시는 둘레길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기존 8개였던 코스를 21개로 개편하여 길고 짧은 코스를 다양하게 배치해 자신의 수준에 따라 코스를 선택해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각 코스의 평균 길이는 기존 20km에서 8km로 짧아져 당초 8시간 정도 걸리던 완주시간은 평균 3시간으로 단축되어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서울둘레길 전 구간 안내판을 통일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시인성을 높이고 코스가 변경되는 기점 21개소에는 시종점 안내판과 스탬프함, 코스 안내판 등을 한곳에 모아 설치하여 한눈에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.
 - 방향·시종점 안내판은 외국인 탐방객을 위해 한글뿐 아니라 영어, 중국어, 일본어도 표기하여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으로 확대 설치하였다.



[서울둘레길 코스 개편]



[시종점통합안내판
(증산체육공원)]



[방향안내판(갈딱고개쉼터) 위치정보 QR코드]



- 한편 서울둘레길 2.0 종합안내판은 포스코와 협력하여 우면산과 수락산 등 권역별 주요 지점에 총 6개소를 설치하였다.
 - 포스코는 서울시와 순환경제사회 촉진 업무 협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.

- 코스 개편에 맞게 서울둘레길 누리집과 안내 책자, 스탬프북을 전면 개편하여 21개 ‘서울둘레길 코스 상세정보’를 비롯해 주변 여가시설, 관광자원 등 풍부한 정보를 담아 배포한다.
 - ‘서울둘레길(<http://gil.seoul.go.kr>)’ 누리집(홈페이지)은 코스 안내와 둘레길 행사 소식 등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창구로, 개편에 맞춰 다양한 주변 관광정보(당초 60개소→변경 194개소)를 확대하여 게시하였으며, 둘레길 코스 안내는 스마트서울맵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.
 - 안내책자에는 21개 상세코스별 안내도를 수록하고,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, 전통시장, 문화재,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관광 문화 휴게공간을 소개하는 등 서울둘레길과 관련된 더욱 다양한 정보(추가 100개소)를 담아 새롭게 발간되었다.

○ 둘레길 21개 코스에 있는 28개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<서울둘레길 완주 인증서>와 함께 기념배지를 받을 수 있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.

▶ 안내책자 및 스탬프북 받는 곳 : 창포원 및 매헌시민의숲 안내센터, 시민청, 아차산 및 관악산 공원관리사무소

□ 기존 서울둘레길 안내체계는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미흡해 코스 내 진입 후에만 안내체계를 따를 수 있었다.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‘서울둘레길’로 향하는 43개 지하철역과 20개 버스정류장에서 원하는 코스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였고, 지난 1월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‘서울둘레길 로드뷰’ 서비스를 시작하였다.

○ 지하철역 내부 종합안내판에 ‘서울둘레길’로 향하는 출입구 정보와 상세한 안내지도를 부착하고, 버스정류장 내 서울둘레길 방향으로 원형안내판과 바닥안내판을 설치하였다.

□ 시는 이번 둘레길 전면 개편에 맞춰, 숲 전문가와 함께 둘레길을 트레킹하며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챙기는 ‘서울둘레길 펀트레킹’, ‘100인 원정대’, ‘달빛트레킹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.

□ 아울러, 올해부터는 둘레길 입구와 코스 중간 음지에서 화관목, 초화류로 어우러진 「매력가든」을 5월에 선보일 예정으로 새롭게 단장한 둘레길을 만나볼 수 있다.

○ 매력가든에는 수국, 수수꽃다리, 짚레, 삼색조팝, 맥문동 등 이색적인 수종을 식재하여 화려하게 꽃 피울 것으로 보인다.

- 미세먼지와 교통이 번잡한 도심에서 떨어져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둘레길에서 치유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[둘레길 포켓가든]



[안양천 매력가든(14코스)]



[매헌시민의 숲 매력가든(10코스)]



[고덕로 매력가든(6코스)]

- 또한, 시민들이 둘레길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안내판에 위치번호 QR코드를 부착하고, 코스안내판에는 ‘서울안심이 앱’ QR코드를 게시하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였다, 주요 탐방로 입구에 ‘지능형 CCTV’도 확대 설치된다.

- 디지털정책관과 협력하여 방향안내판 기둥에는 서울둘레길 각 코스가 반영된 도로명 주소를 신규부여하고 위치번호 QR코드를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현 위치를 파악하고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구조 신고를 용이하게 하였다.
- 시종점 및 주요 갈림길에 설치된 85개 코스안내판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귀가 서비스인 ‘서울 안심이앱’을 게시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‘긴급신고’를 누르거나 휴대폰을 일정 강도 이상 흔들면 해당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로 긴급상황이 전송되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.
- 안심·안전한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 주요 숲길 진입부와 갈림길 등

탐방로 곳곳에 지능형 CCTV·비상벨 설치와 함께 불필요한 셋길 폐쇄, 탐방로 주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목 가지치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□ 시는 그동안 둘레길 노면 정비, 쉼터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.

○ 특히, 전망을 겸한 다목적 데크 쉼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자연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쉬었다 갈 수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

[대성사 둘레길 쉼터]



[호암사 둘레길 쉼터]



[둘레길 정비(12코스)]

□ 마지막으로, 권역별로 둘레길과 연계하여 숲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‘하늘숲길’도 조성한다. 우선 용마산 하늘숲길 조성공사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으로 단순히 걷기만 하는 숲길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.

○ 다양한 시선에서 숲을 조망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높이 10m 내외의 하늘전망대와 캠핑시설(비박)과도 연계하는 한편 걷다가 휴식이 필요할 때 무인휴게소와 트리하우스(나무 위에 집)에 들러 편히 쉬어갈 수도 있다.

▶ 연차별 시행 : 용마산('23~ '24), 호암산('24), 우면산('25), 봉산('25)

[용마산 하늘숲길]



[하늘전망대]



[하늘숲길 무인휴게소]



[하늘숲길 매력가든]

-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“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서울둘레길을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길 바라며, 앞으로도 둘레길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로 품격 높은 숲길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며 “꽃이 만발하고 녹음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건강도 챙기는 ‘서울둘레길’로의 치유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적극 추천한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 | 서울둘레길 2.0 조감도 및 현장사진

□ 용마산 하늘숲길 조감도



□ 서울둘레길 안내체계 현장 설치사진



[시종점통합안내판(매헌시민의 숲 10코스)]



[시종점통합안내판(갈딱고개쉼터 4코스)]

□ 서울둘레길 포켓가든



[매현시민의숲 매력가든(10코스)]



[고덕로 매력가든(6코스)]

|Q1| 서울둘레길 2.0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?

- ◆ 서울둘레길은 2014년 개통 후 서울의 대표 트레킹 코스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으나, 너무 긴 코스별 길이와 난이도, 부족한 안내체계, 다양한 휴게시설과 여가시설의 부족, 둘레길 주변 역사·인문·관광자원과의 낮은 연계성 등으로 젊은 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률이 저조하였음
 - ※ 둘레길 1개 코스별 평균 길이 : 제주올레길(16.2km), 경기둘레길(14.3km)
 - ※ 서울둘레길 완주자 비율 : 60대 이상(57.4%), 40~50대(35.3%), 20대 이하(7.3%)
- ◆ 변화하는 산림여가 트렌드에 맞춰 단순히 걷기만 하는 트레킹에서 다양한 산림휴양 여가시설을 도입하여 서울둘레길에서 걷고, 쉬고, 즐기고, 배우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전 연령이 누구나 쉽게 서울둘레길을 찾고, 가벼운 마음으로 산림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서울둘레길 2.0 사업을 추진하게 됨
 - ※ 8개 코스(평균길이 20km, 8시간 소요) ⇄ 21개 코스(평균길이 8km, 3시간 소요)

|Q2| 기존 서울둘레길과 2.0의 가장 큰 차이점은?

- ◆ 우선 기존 서울둘레길 156.5km 8개 코스를 21개 코스로 세분화하여 코스별 평균 소요시간을 8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시켜 누구나 쉽게 하루 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변경함
- ◆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둘레길 내 하늘쉼터, 하늘숲길, 하늘전망대, 하늘쉼터, 무인휴게소 등 부족한 산림휴양 여가시설과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서울둘레길에서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짐
- ◆ 대중교통(지하철역 43개, 버스정류장 20)에서 서울둘레길 가는 길과 서울둘레길 코스에 대한 안내체계를 확대하고, 서울둘레길 탐방 전 포털에서 서울둘레길 코스를 사전 답사할 수 있도록 서울둘레길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 - ※ 안내판은 외국인 탐방객을 위해 한글,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표기

|Q3| 서울둘레길 코스의 난이도는?

- ◆ 서울둘레길은 크게 숲길, 하천길, 마을길로 연결되어 있으며, 수락산과 불암산을 제외하고 모든 코스가 능선을 따라 완만하게 연결되어 대부분 초급자나 중급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함

※ 코스별의 난이도와 코스 정보는 서울둘레길 누리집(홈페이지) 4월30일 제공 예정

|Q4| 서울둘레길 완주 시 받는 혜택은?

- ◆ 서울둘레길 156.5km 21개 코스 탐방 시 스탬프 우체통에 있는 코스별 도장을 안내책자 스탬프북 또는 모바일 QR 인증을 통해 모두 찍으면 서울둘레길 완주 인증서와 함께 기념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, 향후 서울둘레길 완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기념품을 개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둘레길 완주에 도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

※ 서울둘레길 완주인증서는 서울둘레길 안내센터(창포원, 매현시민의숲)에서 발급 가능

|Q5| 서울둘레길 2.0의 추진일정은?

- ◆ 서울둘레길 2.0은 코스 개편(8개 코스 ▶ 21개 코스)에 따라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서울둘레길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개편, 로드뷰 서비스 제공을 2024년 4월말 완료하고,
- ◆ 2026년까지 용마산 등 4개소에 하늘숲길, 하늘전망대, 하늘쉼터(비박), 무인휴게소 등 거점 산림휴양시설을 연차별로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

※ 거점 산림휴양시설(4개소) : 용마산, 호암산, 우면산, 봉산